

부패와 정부지출의 변동성

임응순¹, 황진영^{2*}, 송인상³

¹호서대학교 경제연구소, ²한남대학교 경제학과, ³호서대학교 경제학과

Corruption and Government Expenditure Volatility

Eung-Soon Lim¹, Jinyoung Hwang^{2*} and In-Sang Song³

¹Economic Research Institute, Hoseo University

²Department of Economics, Hannam University

³Department of Economics,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83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부패와 정부지출의 변동성 간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는 Kaufmann et al.(2008)에서 제공한 부패의 통계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공한 부패인식지수로 나타내며, 정부지출의 변동성은 1990~2005년 기간의 연도별 정부지출 변동률의 표준편차를 이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부패의 통계와 부패인식지수(높은 수치일수록 투명함)는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를 부패인식지수로 나타낼 경우 그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감소했다. 이상의 결과는 유럽의 OECD 국가를 제외한 작은 수의 표본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립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부패한 국가의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은 경제운영과 관련된 규칙을 불규칙적으로 변동시켜 자신들의 영역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Abstract Using cross-section of 83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government expenditure volatility. A country's corruption is denoted by either control of corruption, compiled by Kaufmann et al. (2008), or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provid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 addition, a country's government expenditure volatility is measured by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change ratio of government expenditure from 1990 to 2005.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a country's control of corruption and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higher ratings signifying more transparency) are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volatility of government expenditure. However,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show somewhat reduced statistical significances. The results are robust to the sub-sample of countries excluding European OECD countries. Therefore, the regression results suggest corrupt bureaucrats are able to periodically change economic rules of the game, which results in the possibility of a higher variance in government expenditure.

Key Words : Control of corruption, Corruption perception index, Government expenditure volatility

1.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학에서 부패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국제기관에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한 이후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발표됐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련의 연구결과(예를 들어 [1,2,14,16,19] 등)에 의하면, 한 국가의 부패는 투자나 경제성장과 같은 총합적(aggregate) 경제성장에 대해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황진영(jyh17@hnu.kr)

접수일 10년 11월 23일

수정일 10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 11년 01월 13일

로 음(-)의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부패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불확실성(uncertainty)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장기능을 마비시켜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한 국가에서 부패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며,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부패가 만연할 때 자원배분 및 정부정책을 왜곡시킨다고 제시했다([11,12,17] 등). 왜냐하면 부패한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은 뇌물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authority)를 오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패한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이 뇌물을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정부정책을 왜곡시킨다.

특히 [11]의 논의에서와 같이 부패는 조세포탈이나 조세행정의 유연성과 같은 비효율적인 조세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패한 국가에서 정부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부패한 국가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희망하는 재분배 정책에 대해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크기는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구성에서도 왜곡이 생겨난다.

최근 들어 [3,20] 등의 연구에서는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가 정부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들에 의하면 만약 부패로 인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부지출을 유발하는 형태로 왜곡이 생겨난다면, 한 국가의 부패는 정부지출의 상대적 크기보다 정부지출의 효율성과 관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 국가의 부패는 정부지출의 크기와 구성 및 정부지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가 정부지출의 변동성(volatility)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실증분석은 선행 연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8,9] 등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패한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운영과 관련된 규칙을 불규칙적으로 변동시킬 뿐만 아니라 열등한 형태의 규제를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부패한 국가에서는 생산량 혹은 경제성장의 변동성은 물론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용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한 국가의 부패가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부패가 정부지출의 변동성과 관련된다면,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4,10] 등의 실증분석에서 정부지출의 변동성은 정부활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부패가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면, 부패는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의 변동

성이라는 전달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의 부패는 정부지출의 크기, 구성 및 효율성은 물론 변동성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부패는 정부지출과 관련된 모든 정부활동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부패가 정부지출의 변동성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부패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부패인식지수와 함께 거버넌스(governance)의 한 차원(dimension)인 부패의 통제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부패인식지수는 부패에 대한 공공의 인식만을 나타낼 뿐 부패에 대한 공공의 용인 정도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한 국가에서 부패의 정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패의 통제와 부패인식지수를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된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먼저 경기변동의 불확실성, 즉 변동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결론은 다소 불명확하다. 다시 말해 일련의 선행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소득수준, 금융기관의 발전, 제도적 인프라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산량 변동성이 경제성장에 양(+) 혹은 음(-)의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두 변수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이상의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정부지출의 변동성과 경기변동 혹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진행됐다. 예를 들어 [7,15,19] 등의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의 변동을 규제할 경우 경제가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대해 조정과정이 늦을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6]에서는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대한 규제, 즉 재정정책에 대한 규제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4],[10] 등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해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왜냐하면 정부지출과 관련된 변수가 잘 통제된 국가에서는 적어도 정부지출이 거시경제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부패가 정부지출의 크기, 구성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논의됐다. 그러나 부패가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려는 직접적인 실증분석 결과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그 가능한 이유로는 그 동안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정부지출의 크기, 구성 및 효율성에 집중됐으며,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해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중반 이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하면, 우리는 부패가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즉 부패는 그 성격상 비밀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패가 만연한 사회나 국가에서는 은폐비용이 낮은 집단주의가 성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단주의는 관료주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들 양자간에는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부지출을 유발하게 된다. 즉 부패한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관료주의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혹은 의회에 의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어 관료들의 재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부패는 재정정책의 변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즉 정부지출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9]의 연구에서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부패한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은 시장에서 행해지는 게임의 규칙을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주 변동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8]의 연구에서는 부패한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은 경제운영(특히 거시경제 지표 관리)과 관련된 규칙을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주 변동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를 애매하게 정의하고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부패한 국가에서는 정부활동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이로 인해 정부지출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한 국가의 부패는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통계자료를 사용해 이상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패가 정부활동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의 변동성과 경제성장(혹은 경제성장의 변동성)을 연결하려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2. 자료 및 추정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83개 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사용하는 데, 이는 부패의 통제, 부패인식지수 및 정부지출의 변동성과 같은 주요 변수에 대한 통계자료의 가용성에 근거한다. 먼저 한 국가의 정부지출 변동성(이후 GEST로 나

타냄)의 정도는 “1990~2005년 기간의 연도별 정부지출 변동률의 표준편차”(%)로 나타낸다. 이때 정부지출의 변동률은 [22]에서 제공하는 “GDP 대비 총 정부지출 비율”(%)의 자료를 이용해 계산했으며, 변동률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데 있어 10년 이상의 자료가 가용한 국가만을 표본에 포함시켰다. 국가 간 GEST 자료에 대한 주요 통계량은 표 1에 요약돼 있다.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 이후 CCP로 나타냄)와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후 CPI로 나타냄)를 사용한다. 국가별 CCP 자료는 [13]의 연구에서 제공한 다양한 차원의 거버넌스 측정치 중 하나다. [13]의 연구에서는 1996년, 1998년, 2000년 및 2002~2007년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GEST의 연도(즉 1990~2005년)를 고려해 가용한 연도 중에서 가장 빠른 1996년의 값을 사용한다.

국가별 CPI 자료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제공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자료를 이용한다. 본 연구는 [18]의 연구에서와 같이 한 시점, 즉 2005년에 측정된 부패의 수준이 더 많은 기간(즉 1990~2005년)의 평균에 대해 동일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국가 간 CCP와 CPI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표 1에 요약돼 있다.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초 통계량

변수	설 명	평균	중위 수	표준 편차	최대	최소
GEST	정부지출의 변동성(%)	8.69	7.05	6.37	35.96	1.84
CCP	부패의 통제	0.36	0.11	1.08	2.29	-1.76
CPI	부패인식지수	4.90	4.20	2.38	9.70	1.80
ln(PGDP)	ln(1인당 GDP)(\$)	8.61	8.73	1.05	10.09	5.45
OPEN	무역량((수출+수입)/GDP)(%)	75.07	63.54	41.31	194.21	4.34
IEF	민족분할지수	0.39	0.41	0.25	0.88	0.00
IGE	1990~95년 평균 정부지출(%)	28.54	27.46	11.39	53.48	8.51

부패를 제외하고 GES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실질 1인당 GDP, 무역개방도, 구성원의 이질성 정도 및 초기의 정부지출 규모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질 1인당 GDP는 모든 종합적 경제성과의 원인이 된다. 또한 [21]의 연구에서 무역개방도가 큰 국가일수록

세계시장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협에 더 크게 노출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큰 정부규모를 소유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무역개방도는 정부지출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국가의 구성원 간 이질성 정도는 이해집단의 형성은 물론 이해집단 간의 갈등 및 충돌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크기나 구성은 물론 변동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출의 변동성은 정부지출의 크기에 의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의 정부지출의 크기를 설명변수에 포함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패가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 경우 두 변수 간에는 선형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GEST_i = c + \alpha_1 CORP_i + \alpha_2 \ln(PGDP)_i + \alpha_3 OPEN_i + \alpha_4 IEF_i + \alpha_5 IGE_i + \epsilon_i$$

위 식에서 하첨자 i 는 국가; c 는 상수항; $\alpha_1, \dots, \alpha_5$ 는 추정된 설명변수들의 계수 값; $CORP = [CCP, CPI]$; ϵ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CORP = [CCP, CPI]$ 를 제외한 설명변수, 즉 PGDP, OPEN, IEF 및 IGE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PGDP는 1990년 구매력으로 평가한 실질 1인당 GDP를 의미한다. 또한 OPEN은 한 국가의 무역개방도를 나타내며, 이는 “GDP 대비 무역량(수입+수출) 비율(%)”이다. 이상의 국가별 PGDP와 OPEN 자료는 [22]에서 제공한다. IEF는 구성원 간의 이질성 정도를 나타내며 [5]의 연구에서 제공한 민족분할지수(index of ethnic fractionalization: 이후 IEF로 나타냄)다. 마지막으로 IGE는 초기의 정부지출 크기를 나타내며, 1990~1995년 평균 “GDP 대비 총 정부지출 비율(%)”을 이용한다.

추정방법은 최소제곱법(least squares method: LS)을 이용하며, 이 때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기 위해 t -값들은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해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표본의 선택에 따라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자료가 가용한 83개 전체국가(CPI를 사용할 때에는 82개 국가)로 구성된 표본과 유럽의 OECD 국가를 제외한 61개 국가(CPI를 사용할 때에는 60개 국가)로 구성된 작은 수의 표본에 대해 각기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4.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CCP)가 정부지출의 변동성(GEST)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된 결과는 표 2에 요약돼 있다. 모형 (A)~(D)는 동일한 종속변수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모형을 사용하는데, 이는 국가 간 분석에서 흔히 생겨날 수 있는 설명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표 2] 부패의 통제와 정부지출의 변동성
종속변수: GEST(정부지출의 변동성)

	모형(A)	모형(B)	모형(C)	모형(D)
상수항	9.42 (13.3)***	23.74 (4.67)***	21.68 (3.60)***	21.32 (3.27)***
CCP	-2.71 (-4.24)***	-1.48 (-2.22)**	-1.36 (-2.16)**	-1.43 (-2.01)**
ln(PGDP)		-1.72 (-2.95)***	-1.53 (-2.33)**	-1.56 (-2.37)**
OPEN			-0.01 (-0.65)	-0.01 (-0.73)
IEF			2.31 (0.92)	2.57 (0.88)
IGE				0.02 (0.36)
R ²	0.26	0.32	0.33	0.33
표본 수	83	83	83	83

주: i) 괄호안의 수는 t -값을 의미함. ii) ***, **은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2에서 CCP 추정계수는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됐다. 이는 부패의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8,9] 등에서 예측한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다. 따라서 우리는 CCP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정부활동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CCP를 제외한 다른 설명변수들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ln(PGDP)의 추정계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관측됐다. 즉 평균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수준과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 간에는 음(-)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1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부합하는 결과다. 한편 OPEN, IEF, IGE 추정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 설명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은 것은 CCP와 ln(PGDP) 간의 상관관계(상관계수=0.7314)가 매우 높으며, CCP와 ln(PGDP)가 GEST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 국가의 부패인식지수(CPI)와 GEST 간의 관계를 추정 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국가별 CPI를 사용할 때 표본의 수는 82개 국가로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국가 표본에서 부탄(Bhutan)의 CPI 자료가 가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표 3] 부패인식지수와 정부지출의 변동성
종속변수: GEST(정부지출의 변동성)

	모형(A)	모형(B)	모형(C)	모형(D)
상수항	13.97 (9.22)***	26.20 (3.38)***	26.24 (3.30)***	12.43 (4.74)***
CPI	-1.14 (-5.17)***	-0.27 (-0.76)	-0.27 (-0.71)	-0.92 (-4.07)***
ln(PGDP)		-2.02 (-1.98)*	-2.02 (-2.01)**	
OPEN		-0.00 (-0.36)	-0.00 (-0.31)	-0.00 (-0.42)
IEF		3.08 (1.12)	3.02 (0.99)	3.55 (1.03)
IGE			-0.00 (-0.08)	-0.02 (-0.35)
R2	0.24	0.32	0.32	0.27
표본 수	82	82	82	82

주: i) 괄호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함. ii) ***, **은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3에서 CPI 추정계수의 결과는 표 2의 CCP 추정계수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즉 CPI 추정계수는 모형 (A)와 (D)에서만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모형 (A)와 (D)의 결과는 부패가 심할수록 평균적으로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크다는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그러나 모형 (B)와 (C)에서 CPI 추정계수는 음의 부호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CPI와 ln(PGDP)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상관계수 = 0.8113)에 따른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CPI와 ln(PGDP)를 제외한 나머지 설명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표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표본선택에 따른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유럽의 OECD 국가를 제외한 작은 수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 대해 LS를 사용한 추정결과는 표 4와 같다. 유럽의 OECD 국가를 제외한 표본을 사용한 이유는 유럽 OECD 국가들의 GEST가 대체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표 4] 유럽의 OECD 국가를 제외한 추정결과
종속변수: GEST(정부지출의 변동성)

	CORP=CCP		CORP=CPI	
	모형(A)	모형(B)	모형(C)	모형(D)
상수항	9.71 (14.54)***	17.75 (2.09)**	16.19 (6.53)***	28.17 (3.10)***
CORP	-4.29 (-2.55)**	-3.19 (-1.96)*	-1.57 (-3.25)***	-0.13 (-0.23)
ln(PGDP)		-1.30 (-1.55)		-2.40 (-2.15)**
OPEN		-0.01 (-0.75)		-0.01 (-0.43)
IEF		4.40 (1.08)		5.72 (1.24)
IGE		0.06 (0.80)		0.01 (0.08)
R2	0.23	0.29	0.13	0.22
표본 수	61	61	60	60

주: i) 괄호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함. ii) ***, **은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4에서 CCP는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GEST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됐다. 비록 CCP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전체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사용한 표 2의 경우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우리는 표본의 선택에 관계없이 부패의 통계가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 (C)에서 CPI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값이지만, ln(PGDP)를 설명변수에 포함한 모형 (D)에서 CPI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PI와 ln(PGDP) 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전체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사용한 추정결과와 동일하다. 모형 (B)와 (D)에서 ln(PGDP) 추정계수는 음의 값,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모형 (B)에서 ln(PGDP) 추정계수는 전통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른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는 전체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다.

5. 결론

일련의 선행연구에서 부패가 정부지출의 크기, 구성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했지만, 부패와 정부지출의 변동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다만 일부의 연구에서 부패한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들이 경제운영과 관련된 규칙을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주 변동시킬 뿐만 아니라 열등한 형태의 규제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3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이상의 관계, 즉 부패와 정부지출의 변동성 간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정부지출 변동성은 1990~2005년 기간의 연도별 정부지출 변동률의 표준편차를 이용했으며, 부패의 정도는 [13]의 연구에서 제공한 부패의 통제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공한 부패 인식지수로 나타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와 부패인식지수(높은 수치일수록 투명함)는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부패의 정도를 부패인식지수로 나타내고 소득수준과 동시에 설명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부패인식지수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감소했다. 즉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부패를 나타내는 변수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작용했다. 이상의 결과는 유럽의 OECD 국가를 제외한 작은 수로 구성된 표본을 사용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는 부패한 국가의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은 경제운영과 관련된 규칙을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주 변동시켜 자신들의 영역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부패는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의 변동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과와 관련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의 부패는 정부지출의 크기, 구성 및 효율성과 함께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패는 정부지출과 관련된 모든 정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참고문헌

- [1] 장근호,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경제사회적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8집 제2호, pp. 31-56, 2000.
- [2] 황진영·강동관, "국가별 특성에 의한 부패와 성장 간의 관련성 검토," 『비교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pp. 1-39, 2007.
- [3] 황진영·허식·이성원, "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국가 간 실증분석," 『규제연구』, 제17권 제2호, pp. 171-194, 2008.
- [4] Afonso, A. and D. Furceri, "Government Size, Composition, Volatility and Economic Growth," Working Paper Series No. 849, European Central Bank, 2008.
- [5] Alesina, A., A. Devleeschauwer, W. Easterly and S. Wacziarg, "Fraction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8, pp. 155-194, 2003.
- [6] Alesina, A. and T. Bayoumi, "The Costs and Benefits of Fiscal Rules: Evidence U.S. States," NBER Working Paper No. 5614, 1996.
- [7] Alt, J. and R. Lowry, "Divided Governments, Fiscal Institutions and Budget Deficits: Evidence for the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pp. 811-828, 1994.
- [8] Evrensel, A. Y., "Corruption, Growth and Growth Volatility,"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19, pp. 510-514, 2010.
- [9] Friedman, M., "Nobel Lecture: Inflation and Un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5, pp. 451-472, 1977.
- [10] Furceri, D., "Is Government Expenditure Volatility Harmful for Growth?" A Cross-Country Analysis," Fiscal Studies, Vol. 28, pp. 103-120, 2007.
- [11] Hindriks, J., M. Keen and A. Muthoo, "Corruption, Extortion and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4, pp. 395-430, 1999.
- [12] Hwang, J., "A No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Government Revenue,"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Vol. 27, pp. 161-177, 2002.
- [13] Kaufmann, D., A. Kraay and M. Mastruzzi, "Governance Matters VII: Aggregate and Individual Governance Indicators 1996-2007,"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654, World Bank, 2008.
- [14] Knack, S. and P. Keefer,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Vol. 7, pp. 207-227, 1995.
- [15] Lane, P., "The Cyclical Behavior of Fiscal Policy: Evidence from the OECD,"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7, pp. 2261-2275, 2003.
- [16] Li, H., L. C. Xu and H.-F. Zou, "Corruption,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Economics and Politics, Vol. 12, pp. 155-182, 2000.
- [17] Mauro, P., "Corruption and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9, pp. 263-279, 1998.
- [18] Mauro, P., "Corruption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pp. 681-712, 1995.

- [19] Poterba, J., "States Responses to Fiscal Crises: the Effects of Budgetary Institutions and Polit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2, pp. 799-821, 1994.
- [20] Rajikumar, A. S. and V. Swaroop, "Public Spending and Outcomes: Does Governance Matter?"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86, pp. 96-111, 2008.
- [21] Rodrik, D., "Why Do More Open Economies Have Bigger Governme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6, pp. 997-1032, 1999.
- [22]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 CD-ROM, 2008.

송 인 상(Insang Song)

[정회원]



- 1986년 2월 : 충남대학교 국문학과 (인문학사)
- 1998년 2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8년 2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 1999년 4월 ~ 현재 : 충남테크노파크 기술사업팀장

<관심분야>

공공경제, 기업가치, 기술이전

임 응 순(Eung-Soon Lim)

[정회원]



- 2002년 2월 : 호서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2004년 8월 : 호서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 2010년 2월 : 호서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2011년 1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관심분야>

응용미시, 산업조직, 정치경제

황 진 영(Jinyoung Hwang)

[정회원]



- 1991년 2월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사)
- 1993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01년 5월 : 미국 밴드빌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심분야>

거시경제학, 정치경제학, 경제성장론